▶ **'2017 전주 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

# 전통소리의 화려한 변신 꾀한다

한국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음악을 선보여 온 전주세계소리축제.

오는 9월 20~24일간 열리는 축제는 그간 지향해 '소리'의 스펙트럼을 넓혀 전통을 최대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승화하고자 '때깔 나는 소리(Color of Sori)'를 주제로 다양하고 이색적인 실험무대를 펼쳐 보인다.

전주세계소리축제위원회는 6일 '2017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었다.

### 개막공연에 국내 외 아티스트들 대거 출연
### '판소리 VR' 첫 선
### 어린이 미디어체험전시도

올해 개막공연은 소리꾼 박애리·정보권·박현정, 가수 변진섭·한영애를 비롯해 살풀이의 대가 최선·장인숙 명무 등 국내외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전통음악의 화려한 변신을 꾀한다.

판소리를 문화·예술로 녹여낼 '판소리 다섯바탕'은 도내 청년작가들의 작품 등을 활용한 대형 스크린으로 옮아간다. 거장들의 걸작 및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판소리 사설과 접목, 스크린에 투영해 냄으로써 갤러리형 판소리 공연장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리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일명 '판소리 VR'도 첫 선을 보인다. 판소리 공연이 낯선 관객들에게 VR 시스템을 적용, 현장에서 판소리 공연을 보는듯한 실감나는 영상체험을 제공한다.

지역 아티스트와 문화예술 인프라간의 결합도 이번 축제에서 눈에 띄는 대목. 도올 김용옥 대본·원작, 박범훈 작곡, 류기형 연출, 왕기석 명창 등 거목들이 출연하는 대형 가무악극 '천명'은 놀이마당 무대에서 관객과 만난다.

어린이 미디어체험전시 '꿍짝꿍짝 알록달록 그래, 나는 미술이다!'는 미디어와 현대미술의 접목을 시도한 프로그램. 다채로운 작품을 전당 내의 전시장 전 관에 풀어놓음으로써 소리와 미디어, 미디어와 체험 등 미래 세대들에게 창의적이고 상상력 가득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더블빌(비교음악연주회)'에는 터키 산악지대 양치기들의 민속음악과 한반도 북녘 땅의 토속민요, 이란의 관악기 네이와 한국의 북청사자놀음의 퉁소, 대만의 전통음악을 젊은 감각으로 계승하고 있는 '3peoplemusic' 팀과 우리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실험을 펼치고 있는 '듀오벗' 등이 출연한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음악의 공통점, 혹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 등을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리스·몽골·이란·이탈리아·중국 음악인들로 구성된 '마르코폴로의 음악여행'은 13세기 동서양을 넘나들며 기나긴 항해에 나섰던 마르코폴로의 행적을 관찰하며 동서양의 음악이 조우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폐막공연 '골든 마우스 쇼'에는 허클베리 피, 춘자, 소찬휘, 히든싱어 우승자 안웅기, 옥동자와 비트파이터 등이 출연하여 랩, 힙합, 비트박스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한 무대로 꾸민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소리를 재해석 하고 싶었다"면서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소리와 판소리의 어울림을 대중적·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박재천 집행위원장이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 기자회견에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 전북대, 14일 이탈리아서 '신한류 페스티벌'

매년 세계 곳곳에서 신한류 페스티벌을 열어 한류문화를 전파해 오고 있는 전북대학교 CK-1 신한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건)이 올해엔 이탈리아를 찾아 축제를 연다.

사업단은 오는 14일부터 이탈리아 페루자와 로마를 찾아 '한지를 느끼다(Vivere la carta Hanji)를 주제로 신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페루지아 외국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오는 14일과 19일 이 대학에서 개최된다. 또한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의 공동 협업을 통해 한국문화원(26일)과 로마 포폴로 광장에서도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북대 8개 학과(문헌정보학과, 사학과, 프랑스·아프리카학과, 건축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통계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한국음악학과) 총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에 이어 9회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 역시 페스티벌 전문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직접 한류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준비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지'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공동 진행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한 콘텐츠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오감을 자극하는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으로 나누어진 5가지로 기획됐다. 특히 시각 부스에서는 한지 한복과 한지 공예품 전시도 준비돼 있어 현지 기관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최근 이탈리아로부터 문화재 복원재료로 우리 한지 우수성이 공식적으로 인증됨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한지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이 한지의 세계화 촉진과 한류문화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은 기자

## '바람의 손길' 박계호 작품전 25일까지

(사)문화연구창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향미)은 '바람의 손길' 박계호 작품전을 6~25일 전주부채문화관 지선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계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한 합죽선 신작 및 어피선, 옻칠선, 황칠선, 대모선, 낙죽선, 채화선 등 부채의 선면과 변죽에 다양한 변화를 준 합죽선 등 25점을 선보인다.

박계호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선자장 박인권 선생의 아들로 16세부터 아버지에게 낙죽을 배워 부채 만드는 공정을 익혀 나갔다. 이후 전통방식으로 합죽선을 제작하는 과정을 익혀 박인권 선자장 이수자로 대를 이어 전주부채의 전통을 잇고 있다.

또한 아버지 박인권 선자장과 함께 전주부채연구소를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에 합죽선을 협찬해 역사적 배경과 시대에 맞는 합죽선을 알리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드라마 '바람의 화원', '장희빈', '성균관 스캔들', '신의'와 영화 '대립군', '봉이 김선달', '혈의 누', '관상', '협녀' 등에 소개됐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정해은 기자

# 정읍 연지아트홀 21일 개관

## 착공 후 1년 8개월만에… 축하공연 29일까지

정읍시가 문화시설 확충과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연지아트홀이 완공됐다. 지난 2015년 착공 후 1년 8개월 만의 결실이다.

시는 오는 21일 개관식과 함께 이를 축하는 다채로운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공연은 29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개관 당일인 21일 오후 6시 식전공연인 시립농악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6시30분 개관식에 이어 7시 20분부터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된다. 공연에서는 40인조 아로스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인 성준, 팝페라 가수 주니최가 협연으로 아름다운 클래식부터 귀에 익숙한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22일 피아니스 이미연 독주회, 23일 라스 앙상블 클래식 콘서트, 26일 창작연극 '순정이 블루스'가 공연된다. 이어 27일에는 시립합창단의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29일에는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가 공연된다. 특히 21일부터 29일까지 전시실에서는 개관을 기념하는 기획전시가 이어진다.

연지아트홀은 옛 군청 부지 6248㎡에 연면적 201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무대면적 270㎡, 객석 203석인 소규모 공연장으로 클래식과 연극, 합창,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아트홀이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 삶의 질을 높이고 인근 CGV정읍점과 여성문화관 등을 연계한 문화벨트를 조성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립국악단과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 등의 시립 예술단 공연과 다양한 초청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읍문화예술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